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호 [루게 제24782호] 주제 104 (2015)년 1월 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교육인재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제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심장에 새겨두고 김형직사범대학이 맡고있는 영예로운 사명감으로 하여 가슴은 끓이는 격동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양성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자들에게 베풀어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대학에서는 후대교육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부터 집행할 새 과정안들을 훌륭하게 작성하고 수시건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방안에 새로 첨단자료들을 반영하여 교수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 과정에 우수한 교원후보들을 많이 양성하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지난해에만도 1명의 후보원사와 10명의 박사 배출되었다.

그러나 당의 위대한 인제강국 건설수장에 비해할 때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방대하다. 순간이라도 마음의 완강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미진하다는 자각, 가까운 앞날에 더 많은 교육인재들을 키워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기어보답해야 한다는 의지가 우리의 가슴에 백배, 천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첨단과목들을 부단히 개척하여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수 있는 교육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야심만만한 목표밑에 교육체계를 완벽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혁신하며 다기능화된 교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교육인재양성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도록 새로운 강화를 내오기 위한 사

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의 대우를 키워내겠다.

우리는 나라의 후대교육을 위한 원동장을 지켜겠다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학생들을 전방적 12년제의무교육을 담당수행할 능력이 있는 양질의 교육자들로 훌륭한 키워내도록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위한 인재대군의 발걸음소리가 조국방방방곡곡에 더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

김형직사범대학 학장 변규순

를 내세웠다.

목표는 방대하다.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의 전진길에는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이 놓여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반드시 비약적인 생산성과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어로골들부터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반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맨 앞장에서 열어가겠다.

캐뎬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석탄생산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켜나가겠다.

석탄생산은 넘쳐날라.

우리 연합기업소는 당장건 70톤을 맞는 올해에 전국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릴것이다.

덕천지구관할연합기업소 지배인 장강훈

어구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며 연유가 부족하면 작은 배틀로 세조어업을 하는 등 맹렬한 어로전을 벌이는데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하였다.

지나온 년대들에 파도세찬 바다우에 풍어를 날리던 천리마시대의 기수들처럼, 풍랑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이던 청년들처럼 오늘의 당중앙결사옹위전에서 침체를 모르는 돌격전의 기수가 되려는 것이 기업소일꾼들과 어로공들의 한결같은 심장의 분출이다.

우리는 대중의 정선력이 그대로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이어지게 하고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오늘의 정면전 투쟁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신원연합사범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재경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고있는 국가과학원의 일군들 본사기자 찍음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가 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접하고보니 포부도 커지고 새 힘이 솟는다.

당장건 일흔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수산부문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갈수 있다는 신심이 백배해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격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그 사랑, 그 믿음에 영예의 금메달로 보답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고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날리는데 체육강국건설의 전방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은 지금 백두의 용마당상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범으로 골랐듯이 싸워 승리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올해의 물고기잡이실적은 전적으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지

휘관들처럼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완강히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를 주름잡으며 그들을 혁신으로 떠미는 추진기가 되고 송풍기가 됨으로써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의 최성이 온 바다를 진감하도록 하였다.

어비수령님의 애국유신인 기업소의 수산물생산도대를 더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뎌는 심장우에 받아안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황해남도로련건설에 참가한 황해남도로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정초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일떠서야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 제강소들이 생산을 높일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경제강국건설에 앞당겨지게 됩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3일 3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어비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무산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조망처럼 대형원추형파쇄장의 설비조립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30만산대발파를 진행할것을

장엄한 진군길의 첫

발파소리

만히 생산보장하였다.

운광사업소의 일군들과 대형화물자동차운전자들은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놓았다. 그리하여 대발파가 진행하는데 맞게 늘어나는 막도를 빠

회향한 새해를 맞으며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 장엄한 발파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꿰뚫는 격조와 활력에 접한 황해남도물길건설에 참가한 황해남도로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총천연 기세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1일 1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정초에 울려 퍼진 장엄한 발파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 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련관단위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모하였다.

3일 철산봉을 울리며 3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시일안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전쟁을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빛내이려는 려단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의 힘찬 파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물길공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은 지금 백두의 용마당상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범으로 골랐듯이 싸워 승리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올해의 물고기잡이실적은 전적으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지

은 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련관단위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모하였다.

3일 철산봉을 울리며 3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시일안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전쟁을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빛내이려는 려단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의 힘찬 파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을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할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뛰어들어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다.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생활판인 철도가 올해의 투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헌신감각이 떨쳐나선 이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철

중승의 기적소리 높이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도성적인 첫날수송계획이 101.2%로 수행되었으며 련일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과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새겨안은 철도성 일군들은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다같이 틀어쥐고 새해 정초부터 립체전을 벌이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가 들끓는 현장들에 내려가 대중의 신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시켜주고있으며 그들이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위훈자가 되도록 화신적투쟁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이와 함께 역별, 구간별 화차들의 배치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기동있게 함으로써 각 철도국들에

은 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련관단위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모하였다.

3일 철산봉을 울리며 3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시일안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전쟁을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빛내이려는 려단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의 힘찬 파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은 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련관단위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모하였다.

3일 철산봉을 울리며 3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시일안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전쟁을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빛내이려는 려단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의 힘찬 파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은 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련관단위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모하였다.

3일 철산봉을 울리며 3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시일안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전쟁을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빛내이려는 려단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의 힘찬 파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은 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련관단위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모하였다.

3일 철산봉을 울리며 3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시일안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전쟁을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빛내이려는 려단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의 힘찬 파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해에 그 전례의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이상의 석탄을 생산한 기세를 높이지 않고 생산물질을 힘있게 늘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백두의 넘과 기상을 안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칠 주제 104
(201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신년사에
매박치는 백두의 숨결로 울며 총공격
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싸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이며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이다!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에 대
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완강한 투
쟁을 벌려 지난해를 자랑한 위훈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
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

은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사회
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
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최후승리의 앞날을 새해의 첫 기
습에서 바라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이 차넘
치는것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
두의 칼바람정신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다는 알지 못하였다.

주제 103(2014)년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은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뜻깊은 대회장마다에 빛발치는
그이의 위대한 사상을, 혁명군대지휘
관들의 백두산지주 혁명전적지답사로
는 나라에 백두산바람을 일으키도록
해주시길 고인의 의도를.

지난해 10월 하늘땅을 휩쓸며 세
차게 울부짖는 눈보라를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의 정점
장군봉에 오르시었을 때였다.
천지를 통째로 뒤흔들듯 태고연한
천고의 밀림은 폭풍처럼 세이는데 혁
명의 성산에 거연히 서서서 지금껏
이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
의 칼바람을 맞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백두산의 뾰족마
냥 울려 퍼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은 천만군민의 가슴을 얼마나 새
차게 울려주었는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
를 쳐물리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뜻
으로,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
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바로 백
두산의 정신이라고 하시며 조국앞에
가로놓인 온갖 풍파를 백두의 칼바람
으로 쳐갈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의 눈보라는 백두의 칼바람이
며 백두의 기상이라는 불변의 신념
이 안쓰시고 말씀하셨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
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
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보입니다. ...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
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
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
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추를 내
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이 나라의 높고 험한 산봉들과 파
도세찬 항해길, 삼복의 무더위길, 비
바람, 눈보라를이치는 강행군길을 이
여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선군실록에
는 주제 102(2013)년 11월
의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흰눈이 강산같이 내려쬐인 백설천

지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
보이는 삼지연군을 찾으시었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대지를 열구는 것처럼 추운 날씨에
삼지연으로의 강행군길에 나서신
우리 원수님께서 물아치는 눈바
람을 맞으며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세워진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혁명의 만
년해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이
라고, 삼지연대기념비앞에 서니 백
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끝
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어져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장깊이 새
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
바람정신이 안인 우리 조국의 빛
나는 현실을 보라.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시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통일인민유원지, 유성
과학자주택지, 승호민족소년단
야영소, 연평과학자휴양소, 조선인민
군 2월20일공장...
정령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
바람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도의 손길이 있어 이 땅에
는 기적과 혁신, 창조와 번영의 열매
들이 연이어 추렴되는것 아니라.
백두의 혁명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다.
위대한 땅을 따라 조국번영의 서사
시를 수놓아가며 우리 천만군민은 백
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
안는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
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멋있게 들어설
심장의 맹세로 피를 흘린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
동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올해의 총진
군을 힘있게 다그치나갈 불타는 결
의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산악치
럼 일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천만
겹으로 뭉쳐 그이의 영도따라 역적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달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앞길을 가
로막을 휘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나라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에
서 백두의 칼바람이 최후승리를 위
한 총공격전의 기상을 실어안다.
희망찬 새해벽두부터 백두산칼바
람이 불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항일혁명선열들의 절절한 당부가 천민의 심장을 두드린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워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백번 쓰
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
는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

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1930년대 고난의 행군때
였다. 항일혁명투사 오중흥
동지가 이끄는 7련대는
사령관동지의 전라전술적방심
에 따라 적들의 《토벌》역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강구방향으
로 행동하게 되었다.

하늘에서는 적비행기가 까마
귀처럼 돌아다니고 땅에서는
수십마리의 군견을 앞세운 적들이
미친듯이 달려들면서 감시의
일 톨도 주지 않으며 발악했다.
모진 폭우와 사나운 추위, 극도의
피로를 이겨내며 끊임없이 달
려드는 적들을 죽이고는 끌고가
고, 끌고가다가는 또 죽이면서 행
군하던 그때의 곤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지만 오중흥동지는 《속담
에 고생끝에 띠이 온다는 말이
있소. 우리가 지금은 고생을 하
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가 올것 이요. 우리가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면 그만큼 조국을 해방할
그날이 가까와올것이고 따라서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요.》라고 대원들을 고무하
고 교양하면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자는 굳은
의지로 편대를 이끌었다. 편대
는 끝끝내 사령관동지의 명령대
로 눈물을 상강구까지 끌고가
고야말았다.

오중흥동지는 이렇게 언제나
사령관에서 주는 과업의 어렵고
위험을 마지거나 환경조건지
의 리고 불리한것을 타산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접수하고 그
해결방도를 찾았으며 스스로 어
려운 임무를 맡아 어떤 일이 있
어도 끝까지 관철하곤 하였다.

향 일의 불사조
보천보천투가 있는 직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방방
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대원들
에게 갖가지 물자들을 보내주시
면서 병마와 싸우며 반드시 이겨
달라는 부락과 안치던 다음 전
장에서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
의 편지를 보내시었다.
그때 군사부장으로 사임하며
치료를 받으며 받지 못하여 발
이 썩어들기 시작했던 항일혁명
투사 박순일동지는 편지를 받은
자리에서 통줄임으로 자작 만
든 양철통을 내놓으며 썩어들어

그해 겨울 더 깊은 산중으로
 옮겨갔던 초파병원이 뜻밖에도
적들의 수색에 걸려들게 되었다.
제일먼저 적을 발견한 박순
일동지는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생포되도록 달려
드는 적병을 붙잡고 버림아래
로 끌려들어지면서 《토벌대가

나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다
어느 겨울 후방병원에서 치
료를 받던 항일혁명투사 리두수
동지가 적들의 수색으로 하여 동
지들도 초막도 뒤흔들고 다 잃고 산
중에서 홀로 남게 되었는데
옛세동이나 꼬박 굶은 리두수
동지는 다행히도 한 동지가 끼
니를 마련할 때마다 몇알씩 절약
하여 남겨둔 뒤살필 되는 콩을 발
견하게 되었다. 그때도 얼마 못
가서 다 거덜난 다음에는 매떡이
가 떨어먹곤 한다는 속새를 씌
으며 목숨을 이어갔다.
사나운 백두산추위속에서 먹
을것도 없이 한 마대조각으로 목
을 가리우며 지내야 하였으며 그
간간히 물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는가. 최후를 각오한 순간
에 리두수동지는 완쾌되어 전장
에서 만나고 하신 사령관동지의
당부와 전우들의 안전을 위해

위하여 끝까지 싸우수 있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
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남을 헤치며 싸
워 승리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
마다에 그대로 맥맥쳐
야 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
라, 내 민족을 위하여!
한자한자 가슴에 새
겨둘 수 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을 더욱 깊이 심
어주는 성스러운 이
름발이 얼마나 천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
는 것인가.
일제 위대한 수령님
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의 독
립을 기어이 이룩할 필
승의 신념을 굳게 다지
며 조선혁명의 뜻을 올
린 《2. 27의 열렬청년
혁명가들.》
천출명정신 위대한
수령님의 단결의 중심,
명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새 세대 청
년혁명가들은 그 어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으켜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동지
들의 최후를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것은 자기
를 희생시켜 나를 살려준 동지
들에 대한 배신이다. 살아서
다시 전장에 나서라는것은
사령관동지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나는 그 명령을 어길
권리가 없다.》
리두수동지는 살기 위한 필사
기적으로 목숨을 보전하였다.
리두수동지와 마찬가지로 항
일혁명가들은 몸은 비록
점점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정
신안은 백두의 영봉처럼 도고
한 신념의 강자들이었다.
본사기자 김준희

천만군민이 크나큰 격정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
아안았다.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
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이 신년사의 구절구절마다에 열
마나 새겨져 매박하고있는가.
올해에도 당의 두리에 단결하
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자기
초소, 자기 일리마다에서 만세
의 함성 높이 울리며 승리의 기
발을 휘날려갈 천만군민의 기세
는 드높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
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합
니다.》
하나의 역사적회풍이 밀쳐지
지 않는다.
지난해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
업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로공가족들이 물
고기가공작업을 하고있는 모습을
보고서 대단히 기뻐하시었다.

당과 승결을 같이하는 그들,
당의 수산정책관철의 견조병인
남편들과 한결같은 신 그들이
못내 대결하시었던것이다.
아로공가족들을 정정하게 바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수고한다고, 당정책관철에
서 본보기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우렁찬 함성이 울려

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사회주의포구에서만 울린 만
세소리가 아니다.
김정수평양방직공장, 평양어
린이식료품공장, 평양육아원,
평양야영촌...
이 땅에 울려 퍼진 만세소리가 아

히 오직 당만을 따르려는 심장
의 목소리이며 우리의 꿈과 리
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서
더욱더 다져지는 일심단결의 분
출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
서 언제나 필승불패의 힘의 원
천으로 된것은 무엇이었는가.
일심단결이었다.

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고 인민
은 영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
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
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바
로 이것이 적들이 그 어떤 잡소
리로도 흔들여놓을수 없는, 돈
으로도 유혹할수 없고 핵동등이
로도 깨뜨릴수 없는 오직 우리
에게만 있는 최강의 무기이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며 발악하
고 태양의 빛발은 가리울수 없
으며 일심단결의 성세는 허물수
없다.
우리는 심장으로 웨친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
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 그것
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
장 큰 재부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는 우리의 진군길에는 언
제나 만세소리만이 영원히 울려
갈것이다.
모두다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김철혁

가 장 큰 위 력

퍼졌다.
눈시울을 적시며 격정을 터지
는 종업원들과 가족들을 바라보
시며 그이께서는 뜻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포구에서 울리는 만
세소리가 곧 힘입니다.
만세소리!
생각깊어짐을 금할수 없다.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일군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

직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적들은 우리의 위성과 핵도
두려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것
이 있다.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
오는 로동당만세소리이다.
천만군민이 터치는 만세소리.
그것은 자기 영도자와 뜻을
함께 하려는 신념의 웨침이며
당과 승결을 같이하고 모두가
원수님께서 되어 당정책을 끝까
지 관철할 맹세의 웨침이다.
기쁨 떠나 어려울 떠나 영원

세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
전쟁시기에도, 천리마대고조시
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물론
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때마다 그리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험한 진군길에
서도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영웅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더욱더 굳건해졌다.
영도자는 인민을 위해 끊임없

우리는 심장으로 웨친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
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 그것
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
장 큰 재부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는 우리의 진군길에는 언
제나 만세소리만이 영원히 울려
갈것이다.
모두다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김철혁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천만
겹으로 뭉쳐 그이의 영도따라 역적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달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앞길을 가
로막을 휘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나라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에
서 백두의 칼바람이 최후승리를 위
한 총공격전의 기상을 실어안다.
희망찬 새해벽두부터 백두산칼바
람이 불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한 땅을 따라 조국번영의 서사
시를 수놓아가며 우리 천만군민은 백
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
안는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
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멋있게 들어설
심장의 맹세로 피를 흘린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
동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올해의 총진
군을 힘있게 다그치나갈 불타는 결
의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산악치
럼 일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천만
겹으로 뭉쳐 그이의 영도따라 역적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달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앞길을 가
로막을 휘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나라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에
서 백두의 칼바람이 최후승리를 위
한 총공격전의 기상을 실어안다.
희망찬 새해벽두부터 백두산칼바
람이 불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구호문헌을 통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운다. -대선산유원지관리소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서- 본사기자 찍음

온 나라 강산에 만복넘치고 내 조국 받들어갈 인민의 마음 뜨겁다

흰눈 덮인 마식령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적, 건강적, 체력적, 고상한 도덕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적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더불어 밝아온 새해 2015년!
 태양의 축복속에 만복의 꿈을 안고 새해의 환희로운 생활을 꽃피워가는 인민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껴안은 곳이 있다.
 마식령스키장!
 개장의 테프를 뚫은 후 두번째 해를 넘어선 겨울이다. 올해에 또다시 펼쳐진 마식령의 설경에 피어나는 인민의 웃음꽃, 맑고 푸른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행복의 노래소리, 로동당만세소리를 아래의 글과 화폭에 담아 전한다.

키타리의 기초동작들을 친절히 알려주고있고 스키에 호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친절한 자연을 다스려 희한한 스키주로를 펼친 황홀한 세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희열과 광만의 설

경을 펼쳐놓는 당의 은정이 그대로 초와 분이 되고 날과 날이 되어 흐르는 마식령의 행복년전 시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잊고있었지만 마식령의 야의시계만은 그 모든것을 기록하려는 듯 쉬임없이 돌고있다.

뷰를 그리고 마식령술과 마식령 디스크립 등 그야말로 그로리의 이름만 들어도 군인이 될 정도의 명로리들이다.
 24시간 문을 열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가공하여 즉석에서 봉사하는 커피점들은 들어서기만 해도 환하고 구수한 커피냄새로 하여 황금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긴다.
 호텔안의 음식봉사에 못지 않게 스키장 곳곳에 일떠선 휴식

특색을 가지고있다.
 식당에서의 청량음료봉사와 휴식장소에서의 숯불고기 봉사, 대화봉식사당에서의 각종 산나물요리봉사 또한 스키에 호가들의 기쁨을 한껏 더해준다.
 참으로 마식령호텔이 없이는 그 무슨 마식령스키장의 자랑에 대하여 말하랴.
 지금 이 시각도 마식령의 정든 집-마식령호텔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칠새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 동무들과 함께 겨울철방학의 첫 계획을 마식령스키장으로 정하고 이곳에 왔는데 백년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이렇게 직접 와보니 꼭 별세상에 온것만 같습다. 스키타기가 처음이지만 스키교원의 설명도 친절하고 호텔홈에 스키타기방법과 관련된 설명과 화면이 실 시간으로 현시되니 저같은 생동 이도 몇시간만에 스키타는 묘리를 터득할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마식령의 설경을 대화봉정점에서 굽어보는 장쾌함도 스키타기에 못지 않다고 스감을 떠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다라고 산발로 기, 대화봉에서의 해돋이부감 또한 마식령에서의 겨울철체육관광의 멋이라고 가슴에 넘치는 희열을 한껏 터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설경의 세계, 희열과 랑만의 세계
 정월초하루에 마식령스키장이 문을 활짝 열었다. 이 설경의 세계를 찾은 사람들의 수는 지금까지 근 천명, 시간이 흐를수록 스키에 호가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있다.
 마식령스키장에서의 겨울철 체육관광봉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손님들의 첫째가는 관심은 스키타기이다. 초중급, 고급주루에 따르는 봉사가 친절히 진행되고 있으며 나이와 성별, 기호와 취미에 따르는 세분화된 봉사가 마치고있다.
 스키타기는 물론 스케트 썰매, 눈오트바이봉사 등 겨울철체육 종목과 유희를 다양하게 결합하

고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일단 마식령의 눈세계에 들어서면 언제 시간이 가고 날이 저무는지 모른다.
 스키장에서 손님들이 제일 즐기는 곳은 스키기재입대홀이다. 자기의 체격과 기호에 맞는 스키기재와 부품을 갖추고나면 누구나 전문스키수가 된것만 같아 어깨 으쓱해지고 당장이라도 스키장을 날아지킬듯 너도나도 주루로 나선다.
 하지만 육망만으로는 마식령의 아름다운 눈세계에 쉽게 익숙될수 없다. 스키교원들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준비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지, 돌기 등 스

키타리의 기초동작들을 친절히 알려주고있고 스키에 호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친절한 자연을 다스려 희한한 스키주로를 펼친 황홀한 세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희열과 광만의 설

경을 펼쳐놓는 당의 은정이 그대로 초와 분이 되고 날과 날이 되어 흐르는 마식령의 행복년전 시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잊고있었지만 마식령의 야의시계만은 그 모든것을 기록하려는 듯 쉬임없이 돌고있다.

뷰를 그리고 마식령술과 마식령 디스크립 등 그야말로 그로리의 이름만 들어도 군인이 될 정도의 명로리들이다.
 24시간 문을 열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가공하여 즉석에서 봉사하는 커피점들은 들어서기만 해도 환하고 구수한 커피냄새로 하여 황금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긴다.
 호텔안의 음식봉사에 못지 않게 스키장 곳곳에 일떠선 휴식

특색을 가지고있다.
 식당에서의 청량음료봉사와 휴식장소에서의 숯불고기 봉사, 대화봉식사당에서의 각종 산나물요리봉사 또한 스키에 호가들의 기쁨을 한껏 더해준다.
 참으로 마식령호텔이 없이는 그 무슨 마식령스키장의 자랑에 대하여 말하랴.
 지금 이 시각도 마식령의 정든 집-마식령호텔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칠새없이 이어지고 있다.



걱정으로 가슴끝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 강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인공덕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있다.
 환희 웃고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는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따라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쳐온 공지가 한껏 어그러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나날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광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서 어디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들의 힘이다.》

강계는하리복공장, 강계편지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당의 은정속에 장자강비섯공장과 강계전대연구소가 완공되고 홍주담공장, 강계태지공장, 강계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최고실적이 기록되어 인민들의 식생활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것처럼 불리했던 일기 조건에서도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전반적인 농업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인공덕에서 우리와 만난 도 당위원회 책임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깊은 사랑은 우리 자강도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지난해의 모란탄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오늘날 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자강도에 세계적수준의 폴리브렌 공장이 조립되어 온 나라가 들썩했고 도소재지 강계시가 사회주의선진도시 더욱 번오르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중추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강계도소출공장이 보다 훌륭히 개건되었다.
 당의 현대과학기술진흥회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전민학습의 거점, 과학기술적보급기자들이 훌륭히 개건되었다.

하기에 인공덕에서 불리는 총정의 결의를 다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의 명도만을 받들어갈 마땅함이다.
 도농촌전위위원회 책임일꾼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지나해 우리 자강도가 전반적인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결실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초 전구농업부문본부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격려적인 서한을 보내 주시어 전국이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었겠는가.
 도중추발전소관리국 일꾼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다.
 《나리의 도처에 중추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싶다는 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언입니다.
 건설중에 있는 강계발전소 등 영화발전소와 강계발전소, 배울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것으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적생활조건을 마련해줄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조국경사에 또 한해 지향한 승리의 력사로 기록될 주제 104 (2015)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자강도의 인민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양력성을 뜻깊게 보내왔다.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
 이 얼마나 모두의 가슴가슴을 크나큰 흥분으로 뭉쳐주고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알과 고기생산에서 최고 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자랑을 안고 양력성을 즐겁게 맞이한 홍주담공장의 일꾼은 이렇게 결의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먹이적정을 뜨고 팽팡 생산한 닭알과 닭고기를 매달 받아안으며 기뻐하며 강계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뜻깊은 올해에도 공장을 만부하로 돌려 높은 생산성파를 이룩하겠습니다.》
 강계오리공장, 강계태지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강계편지공장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공장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이런 기쁨과 결의에 넘쳐있다.
 이틀만이나 안도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결의로인한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불타는 명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특파기자 동 세 웅

새해 첫날 원아들과 함께

활해 복도육아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갈들이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새해를 맞은 황해북도육아원에서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길줄 몰랐다.
 인민군인들도, 도와 사리원시, 서흥군의 일꾼들도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고 왔다. 어린이들은 좋아라 떠들썩하였다.
 아마도 설날은 원아들의 명절인것이다.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따듯한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하비의의 그 사랑, 은정을 안고 육아원을 찾은

그들을 우현순동무를 비롯한 육아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갈들이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새해를 맞은 황해북도육아원에서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길줄 몰랐다.
 인민군인들도, 도와 사리원시, 서흥군의 일꾼들도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고 왔다. 어린이들은 좋아라 떠들썩하였다.
 아마도 설날은 원아들의 명절인것이다.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따듯한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하비의의 그 사랑, 은정을 안고 육아원을 찾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으로 원아들에게 솜옷만도 세벌, 네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보육원들에게 그들은 장난 세한 아이들을 위해 세박씩 비물을 더 갖추어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뜻한 보육원 옷도 바닷칼같이 더 마른채 주어 원아들의 생활에 차그마한 불편도 없게 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삼촌이라고 부르며 목에 감겨드는 원아들의 귀여운 볼을 어루삼으며 그들은 당의 승화한 후대사람의 높은 뜻을 더 잘 받들어갈 것들을 새롭게 다지였다.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다.
 온 나라가 화목한 한가정을 이룬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원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육아원에 끝없이 넘쳐나고있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언제나 발전소건설장을 안고 살리

구장군 읍 167인민반 귀경애동무의 가정

구장군 읍에서 살고있는 리경애동무와 그의 남편인 권수환동무는 어린 두 자식을 가진 젊은 로동자부부이다. 소박하고 단란한 이 가정에 년년이 예국의 뿌리가 깊어 버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설날 저녁 리경애동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형제간계단식발전소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추건설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들으셨지요. 지난 기간 발전소건

설장을 지원하였다고 하지만 어찌저 저의 성과가 부족한것만 같아서...》
 권수환동무는 말이 없었다. 말을 채 못하고 또다시 깊은 생각을 잠겨있는 안해의 모습을 그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었던 것이다.
 처녀시절 권의 한 피복공장에서 혁신자로 이름났던 안해는 가정을 이룬 후에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섰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원호지에서 희생된 의화아비처럼 조국을 위해 값있게 살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던 어머니의

대추전으로 빛내일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높여주는 가슴에 받아안고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읽으며 읽을수록 신심과 용기가 배배해진다고 하면서 도안의 림업부문 로동계급은 산지농사무 생산계획을 태양절정으로 끝낼 열의로 심장의 파를 끓이고있다.
 도국도동적보호관리국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리의 귀중한 재부문을 손수 술을 펼치는 산림부구사업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도의 건설부문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결의도 만만치 않다.
 당의 승화한 후대사람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보일 만만한 무지에 넘쳐 당장전 일꾼들은 더욱 흥분되어 현대적인 예우원, 유이원을 일떠세울 결의에 넘쳐있다.
 건설중에 있는 강계발전소 등 영화발전소와 강계발전소, 배울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것으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적생활조건을 마련해줄 결의에 넘쳐있다.
 조국경사에 또 한해 지향한 승리의 력사로 기록될 주제 104 (2015)년, 새해의 첫아침

하기에 인공덕에서 불리는 총정의 결의를 다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의 명도만을 받들어갈 마땅함이다.
 도농촌전위위원회 책임일꾼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지나해 우리 자강도가 전반적인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결실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초 전구농업부문본부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격려적인 서한을 보내 주시어 전국이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었겠는가.
 도중추발전소관리국 일꾼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다.
 《나리의 도처에 중추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싶다는 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언입니다.
 건설중에 있는 강계발전소 등 영화발전소와 강계발전소, 배울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것으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적생활조건을 마련해줄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조국경사에 또 한해 지향한 승리의 력사로 기록될 주제 104 (2015)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자강도의 인민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양력성을 뜻깊게 보내왔다.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
 이 얼마나 모두의 가슴가슴을 크나큰 흥분으로 뭉쳐주고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알과 고기생산에서 최고 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자랑을 안고 양력성을 즐겁게 맞이한 홍주담공장의 일꾼은 이렇게 결의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먹이적정을 뜨고 팽팡 생산한 닭알과 닭고기를 매달 받아안으며 기뻐하며 강계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뜻깊은 올해에도 공장을 만부하로 돌려 높은 생산성파를 이룩하겠습니다.》
 강계오리공장, 강계태지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강계편지공장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공장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이런 기쁨과 결의에 넘쳐있다.
 이틀만이나 안도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결의로인한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불타는 명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특파기자 동 세 웅

설날에 펼쳐진 화목한 대가정의 참모습

해의 마음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으로, 돌격대원들에게로 달려가고있었다.
 권수환동무는 그러는 안해의 일을 더 잘 도와줄 결심이었다. 그는 안해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당신의 그 마음과 우리 온 가족의 지성을 합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더 힘껏 지원 하기로. 우리 언제나 애국의 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요.》
 부모들의 그 마음을 아는듯 어린 두 자식들도 돌격대아이씨들에게 보내줄 축하하지를 쓰느라 신바람나 하였다. 온 가족이 펼쳐나 하나하나의 지원물자를 정성껏 마련해갔다.
 설날 저녁 밤이 깊도록 리경애동무의 집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특파기자 김 천 일

20여년전에 졸업한 리과대학 교원 김영호동무는 지난해 국가발전권을 수여받은 여러인의 교섭을 집행한 자랑을 스승에게 타놓았다.
 이제는 옛 스승과 나란히 교단을 지켜가고있는 덕성소학교 교원 박진숙동무의 얼굴에도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닌 기쁨이 한껏 넘쳐있고 김일성종합대학 문리대학 학생 립업동무의 눈빛에도 최우등의 자랑이 비껴있었다.
 맑은 혁명초소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서 늘 옹요 교단에 섰던 단발머리시절로 거슬러오르네

32년, 그 날과 해를 그는 교단에서 맞고보았다.
 탐구의 열정으로 빛나는 제자들의 맑은 눈동자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후대교육사업에 지해도 열정도 강그리 바쳐왔다.
 그렇게 떠나보낸 제자들이 오늘을 우리의 어엿한 기둥감으로 자라나 이렇게 찾아온것이다.

보안국 최영명동무와 평성시 상업관리소 로동자 리명금동무의 축하의 인사도 스승의 가슴을 커디나 기쁨과 긍지로 부풀게 하고있다.
 리진숙부교장은 그들의 열골머리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길에서 값 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있다.
 보다 밝고 아름다울 조국의 패일을 확신하며 스승도 제자들도 기쁨을 금지 못해 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 천 일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길에 언제나 승리만이 있으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웃김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자랑찬 승리만을 펼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지난 7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았으며 당의 영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각오에 넘쳐있습니다.》

드론은 신심과 각오에 넘쳐 새해의 전진길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 투쟁열을 북돋아주며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전진 전진하게 하는 신념의 노래가 온 천지를 진감시키고있다.

시대의 명곡-《승리는 대를 이어》!

이 명곡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추동하는 영원한 승리의 전진곡이다.

올해는 조국해방 일흔둘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노래의 격동적인 구절을 새겨수북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아래 이 땅에 새겨진 자랑스런 승리의 역사를 대한 긍지와 추억이 새한 파도를 일으키며 심장을 팡팡 두드린다.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승리는 반란당과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미 거둔 승리도 대를 이어 빛내야지만 못한다면 한갓 역사의 추억으로 남았어지게 되어 지어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 빛을 잃는다. 이것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를 들으며

은 장군님 인류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110년전 《시일야방성대곡》의 울음바다속에 식민지노예의 눈물이 강산에 차넘쳤던 이 땅이다. 그러했던 우리 조국이 오늘 높은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로 기세차게 달리고있다.

이 국적인 사변속에 세세년년 빛을 뿌려온것이 바로 대를 이어 영원한 승리의 전통이다.

하기에 이 명곡을 들으며 누구나 백두의 천출명장들의 영도따라 걸어진 승리의 길을 감회깊이 되돌아보게 된다.

강도의 수림속에 나팔소리 높이 울려 퍼진 4. 25에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불빛을 안아온 8. 15에서 침략자 미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저박은 승리의 7. 27로!

돌이켜볼수록 은 민족이 그토록 예외적 불행한 절세위인인 태양으로 높이 모시여 역사의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승리를 얻어 이룩해 온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심장이 끓어오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승리의 전통을 더 큰 승리로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절세위인들의 영도따라 백전백승의 한길을 새겨온 우리 혁명사에 선군의 8. 25가 금문자로 빛나고있다.

전하의 포성이 멎은 때로 붉게 수심난 잔적들의 그처럼 걸진 고품압살해총속에서도 전진장을 모르고 우리 인민이 행복을 생활을 누릴 수 있는것은 우리에게 선군의 8. 25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영도의 새 출발을 선언하신 선군의 8. 25!

이 역사의 날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총포성없는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도 승리하였고 세기를 이어 오늘까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편전편승을 안아올수 있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8. 25가 없으면 오늘의 승리와 승리의 전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철의 진리를 자신들의 실생활을 통하여 뼈저리게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시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또 한번의 최세의 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선군시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신 경애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 이 땅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적자를 전하는 대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일떠서게 되었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 조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 제 3호기 저하역시범의 성공 등 세일을 놀려오는 패승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다.

나라의 군력을 불패로 다지시려 최첨단무기에 대한 끊임없는 시찰과 각종 위대한 타격수단들의 사격훈련에도 바치신 경애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여는 한두마디의 말로 또 표현할 수 없다. 원수들이 불장난상을 때없이 벌리며 침략의 불구름을 아무리 몰아와도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흐르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단력, 천변만화의 지략과 탁월한 영도아래 이 땅에서 승리의 전통이 어떻게 자랑스러워져오고있는가 하는데 대한 철학적해답이라고 볼수 있다.

《성스러운 국기우연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해빛 백승에 우리를 인도하리라》라는 뜻깊은 구절을 되외보노라면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형률, 태양복에 대한 격정이 부반복으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시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또 한번의 최세의 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선군시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신 경애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 이 땅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적자를 전하는 대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일떠서게 되었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 조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 제 3호기 저하역시범의 성공 등 세일을 놀려오는 패승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다.

나라의 군력을 불패로 다지시려 최첨단무기에 대한 끊임없는 시찰과 각종 위대한 타격수단들의 사격훈련에도 바치신 경애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여는 한두마디의 말로 또 표현할 수 없다. 원수들이 불장난상을 때없이 벌리며 침략의 불구름을 아무리 몰아와도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흐르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단력, 천변만화의 지략과 탁월한 영도아래 이 땅에서 승리의 전통이 어떻게 자랑스러워져오고있는가 하는데 대한 철학적해답이라고 볼수 있다.

《성스러운 국기우연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해빛 백승에 우리를 인도하리라》라는 뜻깊은 구절을 되외보노라면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형률, 태양복에 대한 격정이 부반복으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시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또 한번의 최세의 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선군시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신 경애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 이 땅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적자를 전하는 대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일떠서게 되었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 조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 제 3호기 저하역시범의 성공 등 세일을 놀려오는 패승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다.

나라의 군력을 불패로 다지시려 최첨단무기에 대한 끊임없는 시찰과 각종 위대한 타격수단들의 사격훈련에도 바치신 경애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여는 한두마디의 말로 또 표현할 수 없다. 원수들이 불장난상을 때없이 벌리며 침략의 불구름을 아무리 몰아와도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이 땅에는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를 두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체육종목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얼마전 평양과 삼지연, 부전 등에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짧은루로 속도빙상, 빙상쇼케이, 빙상회기, 스기경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종목 경기들도 그러했지만 우선적으로 빙상의 빙상장에서 진행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속도빙상경기를 두고

5000m경기를 비롯한 여러 세부종목경기를 진행하였다.

모든 감독, 선수들은 세계적인 속도빙상발전추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우리식의 대담한 경기운영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있으며 승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나라 속도빙상협회 서기장 임리반동무는 각지 체육단 속도빙상선수들의 우수열의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이번 경기를 통하여 전반적인 기술수준도 한계한 더 오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대성산체육단과 김책체철련합기업소체육단의 선수들은 높은 기술과 강한 체력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성산체육단의 리백범, 김원혜선수들은 다양한 기술로 지기속도를 최대로 높여 남, 녀경기에서 각각 개인종합 1등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김책체철련합기업소체육단의 책임감독 리희진동무는 낮은 자세에 의한 강한 밀어치기로 지기속도를 최대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여 년한있는 선수들은 물론 신진선수들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신진선수들이 훈련에서 편만한 기술을 경기에서 최대로 발휘할수 있도록 대담한 경기전술들을 적극 활용하나같은서로 집단적인 경기성과를 확대해나간 성원강체육단 감독들의 성과도 주목을 끌었다.

장지산체육단의 책임감독 김윤철동무는 선수들이 육체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것과 함께 경기운영을 주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지난 경기들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극복할수 있게 하였다.

이번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빙상장에 차를 친 비약의 열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체육종목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얼마전 평양과 삼지연, 부전 등에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짧은루로 속도빙상, 빙상쇼케이, 빙상회기, 스기경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종목 경기들도 그러했지만 우선적으로 빙상의 빙상장에서 진행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체육종목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얼마전 평양과 삼지연, 부전 등에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짧은루로 속도빙상, 빙상쇼케이, 빙상회기, 스기경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종목 경기들도 그러했지만 우선적으로 빙상의 빙상장에서 진행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자기 고장의 특산을 늘여가는 자랑

부전군사회급양관리소에서 진행된 감사음식품평회장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감사음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해발고도가 1400m에 되는 부전군에 자리잡고있는 부전군에 혼한것은 감자이다. 그러한 감자로 만든 음식까지수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이 군의 또 하나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얼마전 부전군사회급양관리소에서 진행된 감사음식품평회장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잘 알수 있었다.

지배인 김충근동무가 품평회장을 찾은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품평회장이 좀더 자세히 펼쳐있는 갖가지 감사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절로 흐뭇해졌고 구미가 부쩍 돋아났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끈것은 김연옥동무가 책임자로 일하는 국수에서 내놓은 감사축죽수였다. 축의 고유한 향기를 살리면서도 감사축죽수의 특색있는 맛을 내는 감사축죽수는 정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다.

감자축죽수 못지 않게 호기심을 끌어들인것은 다른 단위에서 내놓은 연감자말이빙이였다. 이것이 정말 감자로 만든 음식인가 할 정도로 맛이 참 좋았다.

그러나 하면 감사파베기는 또 얼마나 특색있는 것인가. 료리사의 말에 의하면 감사파베기를 만드는제서 기름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면서 튀기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수많은 감사음식들이 펼쳐져 있는 품평회장을 돌아보면서 연감자파베기를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준 지배인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10여년전 품소 이 고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전군에는 감사자 많은데 감사음식을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렇듯 부전군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감사음식개발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고심하던 량수와 열정을 바쳐온 군사회급양관리소 일꾼들과 이 애당초의 봉사자들이였다. 그 나날 자기 고장에 혼한 감자를 가지고 만드는 감사음식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온것과 더불어 가지가지의 봉사자량도 날로 꽃피었다.

군당위원회책임일꾼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주속에 감사음식을 가지고 군내주민들은 물론 신흥지구 혁명전지자를 찾는 참관자들도 감동받은 감자파베기를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준 지배인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고결한 애국충정의 한마음으로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더 활짝 꽃피우며 자기 고장의 특산-감자음식의 가지수를 늘이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가는 이곳 일꾼들과 봉사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나가는 이런 뜨거운 열정속에 부전군의 감사음식개발은 끝없이 늘어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감사음식품평회장을 나섰다.

글 및 사진 지 혁 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에 의해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전 개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를 찾았을 우리는 작업의 열정에 찬바람이 함께 불어오며 주의깊게 읽고있는 여러통의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관부아저씨들, 나는 전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배우면서 전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잘 알았어요...》

《...나는 유지원 높은반에 다니는 율리앙이요. 귀중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 이바지하고있는 관부아저씨들에게 달려가서 노래방 불러드리고싶어요...》

연필로 도박도박 박아쓴 그 편지들은 모란봉구역 김애우이친한 어린이들이 보내온 것이였다.

이제 평양에 가면 기특한 그 애들을 찾아가 자기들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탄원들의 부탁을 받고 우리는 얼마전 이 유치원을 찾았다.

유치원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키워 내어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자랑많은 유치원이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이곳 유치원 원장 권재옥동무는 일군들과 탄원들이 적지 않다.

《김대원, 율리앙이들이 각각의 탄원들과 편지들을 해 보낸 편지는 수백통을 헤아린다.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 써보낸 그 편지들을 받아보고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어 회답편지를 보내오는 일군들과 탄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장은 김대원, 율리앙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는 교양원 한향탄동무를 우리앞에 내세웠다.

원장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열의에 한향탄원장이 맡은 바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모두 특등, 1등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하게 키우고있는 그의 경험은 참으로 본

릉과 곱듬어판에서 만난 사람들

시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에 의해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전 개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를 찾았을 우리는 작업의 열정에 찬바람이 함께 불어오며 주의깊게 읽고있는 여러통의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장은 김대원, 율리앙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는 교양원 한향탄동무를 우리앞에 내세웠다.

원장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열의에 한향탄원장이 맡은 바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모두 특등, 1등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하게 키우고있는 그의 경험은 참으로 본

시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에 의해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전 개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를 찾았을 우리는 작업의 열정에 찬바람이 함께 불어오며 주의깊게 읽고있는 여러통의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장은 김대원, 율리앙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는 교양원 한향탄동무를 우리앞에 내세웠다.

원장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열의에 한향탄원장이 맡은 바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모두 특등, 1등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하게 키우고있는 그의 경험은 참으로 본

시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에 의해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전 개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를 찾았을 우리는 작업의 열정에 찬바람이 함께 불어오며 주의깊게 읽고있는 여러통의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장은 김대원, 율리앙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는 교양원 한향탄동무를 우리앞에 내세웠다.

원장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열의에 한향탄원장이 맡은 바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모두 특등, 1등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하게 키우고있는 그의 경험은 참으로 본

빙상장에 차를 친 비약의 열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체육종목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얼마전 평양과 삼지연, 부전 등에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짧은루로 속도빙상, 빙상쇼케이, 빙상회기, 스기경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종목 경기들도 그러했지만 우선적으로 빙상의 빙상장에서 진행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체육종목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얼마전 평양과 삼지연, 부전 등에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짧은루로 속도빙상, 빙상쇼케이, 빙상회기, 스기경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종목 경기들도 그러했지만 우선적으로 빙상의 빙상장에서 진행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체육종목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얼마전 평양과 삼지연, 부전 등에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짧은루로 속도빙상, 빙상쇼케이, 빙상회기, 스기경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종목 경기들도 그러했지만 우선적으로 빙상의 빙상장에서 진행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경기에는 대성산, 대명산,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의 1급, 청년군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500m, 1000m, 1500m, 3000m,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체육종목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얼마전 평양과 삼지연, 부전 등에서 오산석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짧은루로 속도빙상, 빙상쇼케이, 빙상회기, 스기경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상 식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진 푸초

푸초는 과피에 속하는 여러 해산물이다.

익은 진한 풀색을 띠면서 가늘고 길며 살이 많고 만물이다. 뿌리는 수염뿌리로 되어 있으며 무와 닮아있는 형이다.

푸초는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매우 세므로 발에서 겨울을 난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곳에서 재배할 수 있다.

빛에 대한 요구성은 보통정도이다. 가을에 견디는 힘이 세지만 습기가 잘 보습되어야 질 좋은 푸초를 생산할수 있다.

푸초는 땅을 가리지 않으나

썩장은 꼭 썩거나 삶은 콩에 썩장균을 자재우고 소금과 납새,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반고체 배양액의 장이다.

썩장균은 자연계에 어디에나 다 분포되어있는데 배지나 다른 물에 특별히 많다.

익은 콩을 버전에 넣고 끓여 끓인 온도를 보장하면 버전에 있던 썩장균이 만들어낸 단백질분해효소의 작용으로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과 펩티드로 분해되면서 숙성이 진행되며 이것을 썩장균 또는 락토박이 라고 한다.

이렇게 만든 락토박이 소금 등을 넣은것이 바로 썩장이다. 공업적으로 썩장을 생산할

건 강에 좋은 썩장

때에는 버전을 리용하지 않고 순수 배양액 썩장균을 리용하여 락토박이를 만든다.

썩장균은 액체 또는 고체상태로 리용하는데 하루썩장균 3g이면 수습kg의 썩장을 만들수 있다.

그 맛과 냄새가 매우 독특한 썩장은 소화수율이 95. 2%로서 대단히 높다.

전공의 소화수율이 65%이고 두부가 85%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썩장은 모든 콩가공식품가운데서 소화수율이 가장 높은 식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썩장은 직접 밥에 버무리 먹어도 좋다.

한식수업영양관리대학 박사 리선남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에 의해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전 개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를 찾았을 우리는 작업의 열정에 찬바람이 함께 불어오며 주의깊게 읽고있는 여러통의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장은 김대원, 율리앙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는 교양원 한향탄동무를 우리앞에 내세웠다.

원장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열의에 한향탄원장이 맡은 바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모두 특등, 1등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하게 키우고있는 그의 경험은 참으로 본

시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에 의해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전 개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를 찾았을 우리는 작업의 열정에 찬바람이 함께 불어오며 주의깊게 읽고있는 여러통의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장은 김대원, 율리앙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는 교양원 한향탄동무를 우리앞에 내세웠다.

원장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열의에 한향탄원장이 맡은 바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모두 특등, 1등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하게 키우고있는 그의 경험은 참으로 본</

태양의 빛발따라 통일강국을 기어 안아오려는 남녘겨레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며 희망찬 민족의 밝은 미래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이 어린 역사적인 신년사가 울려 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하고 이 땅에 준엄하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 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그대로 담은 신년사는 지금 해내외의 각계 각층 동료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해방 일흔팔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 갈 방향과 방도가 환히 밝혀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 읽고 무한한 격정에 휩싸인 남녘겨레들은 원수님의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맹세를 가다듬고 있다.

그렇스록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새겨안고 있는 남녘인민들이다. 그들은 삼가 웃음을 여미고 복내하는 울림을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민족의 하늘이시고 겨레의 운명인 신년사를 읽는 건 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김정일 원수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민족자주통일과 강성번영의 창상한 앞날이 기약되

어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원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원한의 불꽃이 트장벽을 넘어 평양의 하늘가로 깔없이 메아리쳐오는 축원과 경모의 목소리, 그것은 애오라지 민족의 창상한 미래를 위해, 자주통일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찬탄과 애국의 메아리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평등공포와 정치실력으로 요약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시면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확산성있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의 천리혜안의 예지,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 단호하고 대담한 실력, 인내나 부딪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 적어간의 치밀한 정치, 외교, 군사적 대결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만을 이룩하는 무비의 단력과 배짱,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필기운명의 지략은 온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천출위인의 거룩한 품도, 민족자주통일을 승리로 이끄시고 세계의 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특출한 평등공포, 민족적정열을 날이 갈수록 더더욱 심장으로 느끼고 있다. 하기에

그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를 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이룩되고 통일된 조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강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린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남녘겨레들이 드린 인사는 무척의 선군보견으로 민족의 운명을 모질게도 위협하던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가 서주신 일류의 수호자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이기도 하다.

미제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 극도로 엄중한 오늘과 같은 정세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지하였던 우리 겨레의 운명 파 이 땅의 평화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남녘인민들은 북의 군사적외책이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철폐로 되지만 자기들에게는 전쟁위기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첩의 방패로 된다고 몇몇이 말하고 있다.

대구의 한 종교인은 자기 평생 교리를 믿으며 바라온것은 바로 진실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사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군정치에 의해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약간은 권력으로 지켜지고 펼쳐지는 이북의 존엄은 황금고도 사수 없고 원자탄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리고 그러한 민족의 자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존엄이다.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경한 자세로 하여 존엄수호의 신비

경을 펼쳐보이고 있는 이북은 그야말로 존엄의 왕국이다.》라고 찬탄을 금지 못하였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국력이 강함이 약한가지를 걱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국력은 탁월하고 세련된 평균술과 지략을 지닌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장군중의 장군인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일 원수님의 평등하에 오늘 이북은 강국의 기상, 필승의 기개로 세상에 높이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도 있고 통일도 있으며 평화공포와 부강번영하는 조국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증명할 현실을 통하여 사투이 세진 남녘겨레들이 사투이 그들의 인생을 바라는 마음이 그토록 간절했었다.

민족을 평평한 언덕으로 인도하는 세기의 태양, 사랑과 인덕의 빛과 열로 천하를 밝히고 기쁨의 운명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우리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한 것이 오늘 남녘겨레가 무덤없이 리치는 격정의 해마다.

민족을 평평한 언덕으로 인도하는 세기의 태양, 사랑과 인덕의 빛과 열로 천하를 밝히고 기쁨의 운명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우리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한 것이 오늘 남녘겨레가 무덤없이 리치는 격정의 해마다.

민족을 평평한 언덕으로 인도하는 세기의 태양, 사랑과 인덕의 빛과 열로 천하를 밝히고 기쁨의 운명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라야 할 민족의 절충한 평등자이시라겠음을 심장으로 확신하였기에 이들을 한없이 그리며 자기

를 위하여 애를 태우며 지내오려는 남녘겨레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평 남녘겨레의 가슴마다에 울려 퍼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흥조의 정은 그리움의 대화가 되어 강토에 굽이치고 있다. 태양의 빛발따라 통일강국을 기어 안아오려는 남녘동지들의 신념도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있다.

만물이 태양을 따르고 천만강출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이 자연의 어귀가 없는 법칙이듯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백세의 필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 그의 평등을 떠나서 겨레의 운명개척과 조국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남녘인민들의 신념은 무엇보다도 짙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주는 위대한 힘에 대한 확신은 투쟁의지를 북돋아 주기 때문이다. 남녘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에서 고무를 받으며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꽃을 더욱 세차게 피어 불리고 있다.

안팎의 반동일세력이 아무리 기세를 부리며 동족대결의 찬바람을 몰아와도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은 변함없다.

민족의 태양, 자애로운 어머니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활짝 꽃피어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남녘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깊이 절감하게 하고 있다.

부산의 한 정치학교수는 《평등자는 민족을 위하여 불면 불후의 로고를 바치고 민족은 평등자의 의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북 특유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인류정치는 인민정치를 근본으로 내세울 리라도 있었고 내심으로 민심을 얻으려던 정치가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북에 펼쳐지는 인민사랑의 정치에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고 부를만한 정치는 찾아볼 수 없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원수님의 인민위기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위해 바치는 로고를 띠고 여기서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 김정일 동지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진정한 민족에 대한 사랑을 친필로 지니신 민족의 참다운 영수, 민중중심

의 애민정치가, 구세제민의 태양의 모습으로 세인의 경탄과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인민사랑의 정치는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근본원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기 평등자를 어머니로 따르는 불같은 총성의 마음들, 오직 자기 수행, 자기 당, 자기 조국밖에 모르는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조선의 진짜힘이 되고 진짜 모습이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강대함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북의 미래는 창창하며 김정일장군님께서 그토록 땀 흘린 사회주의강성국가도 일떠서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올 것이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단체장은 《자기 평등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북군민의 일심단결, 이것은 가장 숭고한 사랑과 가장 깨끗한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무척의 힘을 낳는 귀중한 원천이다.》라고 격정을 터놓으면서 이렇게 썼다.

《이남민중은 김정일 평등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북의 일심단결의 모습에서 통일된 조국, 우리 겨레의 미래를 보고 있다. 그 위력으로 이북은 가까운 앞날에 세계에 빛을 뿌리는 강성국가로 우뚝 솟아올랐을 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의 두리에 뭉쳐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반도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를 안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 파카히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속에서는 《통일은 멀지 않다. 겨레들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북반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정일 최고평등자님을 중심으로 받들자.》,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 있다.》라는 확신에 넘친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비범한 자질과 위인적품격을 완전 무결하게 갖추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따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 자애로운 어머니로 칭송하고 있다. 온 민족의 다함없는 흥모와 신뢰를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높이 모시었기에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실하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평등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파카히 떨쳐나설 온 겨레의 애국의 맹세, 신념의 맹세가 새해와 더불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본사기자 심철영

도전을 짓부시며 비약하는 공화국

지금 우리 조국은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파카히 짓부시며 그 누구도 감히 견드릴 수 없는 자주적 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창조와 비약으로 들끓는 전도양양한 나라로 온 세상에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땅에 대기술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아다닌다. 더욱 높아가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회기가 펼쳐지고 있다.

선군의 내 조국이 강대했건은 백두의 천출명성이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다.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없이 최후승리를 향해 곧바로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장엄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새겨안고 있다.

《평등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북민중은 경제강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고 있다. 이북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들은 김정일 원수님의 현명한 평등도의 결실이다. 그의 크나큰 로고에 의해 북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으며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있다.》 《북에는 가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하여 부투함!》이라는 구호가 나붙어있고 사람들은 국가의 해백속에 모두가 활기에 넘쳐 생활하고 있다. 공화국의 품안은 온 겨레가 함께 안장할 은혜로운 품이다. 하로갈라 통일열풍을 타고 북으로 가고 있다.》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며 온 누리에 떨쳐지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은 남녘겨레로 하여금 원수님의 할이 앞으로 더욱 강하게도 영원할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커다란 민족적자긍과 자부심을 새겨안은 그들은 남조선에서 위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삶을 누릴 의지를

안고 투쟁의 길에 떨쳐나가고 있다.

반미, 반《정부》투쟁의 함성이 십차게 울려나오는 어느 한 투쟁현장에서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 이남민중은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빼앗긴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의 색은 정치를 뿌리뽑고 저 이북과 같은 자주정치의 새 세상을 안아와야 한다. 이북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 위업고수를 위해 목숨까지 드슴없이 바쳐 싸우고 있다. 얼마나 궁지로 몰아, 우리도 하루빨리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존엄과 권리는 바로 이북민중처럼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남녘의 민심이다.

본사기자

올해는 조국해방 70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5주년 되는 해이다. 뜻깊은 새해의 이 아침은 겨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강고리 바치시어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외세의 식민주의침탈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녘민중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을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셨다. 그분께서는 80여명의 년로하신 몸이셨지만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로심초사하시었다.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김일성주석님께서 쌓으신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동료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는 마음

위해 바친 어머니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헌신과 불굴의 강요가 돌이켜보면서 천우들에게 자기의 격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외세의 식민주의침탈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녘민중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을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셨다. 그분께서는 80여명의 년로하신 몸이셨지만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로심초사하시었다.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김일성주석님께서 쌓으신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동료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바친 어머니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헌신과 불굴의 강요가 돌이켜보면서 천우들에게 자기의 격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외세의 식민주의침탈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녘민중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을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셨다. 그분께서는 80여명의 년로하신 몸이셨지만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로심초사하시었다.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김일성주석님께서 쌓으신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동료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스카이가드》반항공체계로 부터 발전된 미사일들은 가장적인 적의 무기를 명중시켰다.

경제장성전망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올해 평균경제성장률이 5%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유엔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단과 남부수단이 지난해 12월 30일 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 호상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27일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 보건, 에너지, 운수 등 분야에서 협조할 계획에 관한 4건의 양해각서에 조인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 새로운 군사원리 발표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최근 정명 《로씨야연방의 군사원리에 대해》에 수포하였다.

정명에 따라 종전의 군사원리는 노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새로운 군사원리로 수정되었다.

연방안정리사회가 밝힌데 의하면 군사원리의 수정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북아프리카, 수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로 하여 로씨야에 새로운 위협이 출현하고 로씨야국경 가까이에서 나토의 공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 전개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한다.

새로운 군사원리에는 일반무기의 전무준비상태를 최고의 수준에서 유지하며 군사적충돌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로씨야의 주요과업이 구체화되고 추가되었다. 이외에 공민들에 대한 군사애국주의 교양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도 포함되었다.

항공우주방어와 북극에서 로씨야의 국가적리보방문제, 군사하부구조대상의 건설과 현대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군사원리에는 또한 브릭스성원국들과의 호상협력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남부세제야와의 판계를 발전시키는 문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하여 정명은 이것을 베네수엘라의 자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반쪽한 침해행위로 확인하였다.

정명은 일방적인 경제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미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테로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파키스탄수상 모함마드 나와즈 샤리프가 지난해 12월 25일 조지타운에서 테로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페사와르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테로그루바의 야만적인 행위는 전체 주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스카이가드》반항공체계로 부터 발전된 미사일들은 가장적인 적의 무기를 명중시켰다.

경제장성전망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올해 평균경제성장률이 5%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유엔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단과 남부수단이 지난해 12월 30일 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 호상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27일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 보건, 에너지, 운수 등 분야에서 협조할 계획에 관한 4건의 양해각서에 조인하였다.

본사기자

블랙불가담운동 배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비난

블랙불가담운동이 지난해 12월 23일 정명을 발표하여 배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배격

감비아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정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집권자 겸 감비아의 《인권레벨》을 검토하면서 이 나라를 《무역특혜대상명단》이 아니라서 제명할것과 관련하여

미국 휴스턴시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의 휴스턴시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인종차별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시사법당국이 26살 남 흑인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많은

주일미군의 조기경계레이다 가동

미국이 각종 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지역적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주일미군이 일본의 교토부에서 고성능 조기경계레이다 《X밴드레이다》의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 레이더의 미사일탐지거리

언론협박의 진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일본 도쿄에 있는 《아사히신문》본사에 협박문과 함께 손칼이 우편으로 배달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큰이거리로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구 일본군성의 성노예범죄실상에 대한 보도를 반대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그 기사를 써낸 기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우편물을 누가 보냈는가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사회에 군국주의바탕이 얼마나 어지럽게 불고있는가 하는 것을 뚜렷히 알 수 있다.

언론이라고 하면 사회에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반대이다. 과거 일제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일본군인의 흉조라고 일본인들한테서 문제로 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과거 일본군이 아시아를 전방위로 만든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역사를 속이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현당국을 비판하였다. 또한 《아사히신문》사장은 구일본군성에 대해 대한 비난이 공격적이라는 항의전화까지 걸어왔다. 단정시제로 1990년대 이후 구일본군성에 대해 보도를 취급한 기자에 대한 비난소통을 들 수 있다. 그는 성노예관련자들을 만나 취재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신문들에는 《아사히신문》에 《국적》, 《태국》, 《미국》을 비롯하여 비난하는 글들이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일제의 범죄역사를 미화본식하고 군국주의를 제정하는 자들의 나쁜 행위를 고발하고 말라야 한다. 이번 《아사히신문》본사에 협박문에 저들의 행위가 《일본

다느니 뭐니 하는 기사들이 실렸다. 그가 취재하고 예정보였던 대학에서 항의가 일어나 결국 교수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안락사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내며 다른 대학에도 그를 사임시켰다는 항의전화까지 걸어왔다. 인터넷상에 그의 가족 이름과 사적인 공개가 압력의 도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일부 신문들에는 《아사히신문》에 《국적》, 《태국》, 《미국》을 비롯하여 비난하는 글들이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일제의 범죄역사를 미화본식하고 군국주의를 제정하는 자들의 나쁜 행위를 고발하고 말라야 한다. 이번 《아사히신문》본사에 협박문에 저들의 행위가 《일본

민족정신재건의 첫걸음이다.》라는 글을 공공연설을 써넣은것만 보아도 그 목적을 똑똑히 알 수 있다.

한미미로 《아사히신문》에 대한 협박사건은 철저하게 《대동양공공연》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광증의 발로이다.

오늘 일본에서 몰아치는 군국주의바탕은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할 언론에게서 몰아쳐 국민들을 제정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과거범죄역사를 부정하여 제정의 길로 나아갈수록 그것은 해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렁이 빠져드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신경섭

큰 물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고 있다.

10여년래 최악의 큰물로 지난해 12월 28일 현재 1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16만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다.

꺼판판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진

필리핀의 중남부수역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히터리쳐도로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8.602°, 동경 121.5041° 되는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